

그림책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현은자¹⁾

1. 그림책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필요성

그림책(picture book)이란 삽화가 들어간 책과는 달리 글과 그림의 비중이 같거나 그림의 비중이 글보다 훨씬 높은 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그림책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유아를 위한 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림책이 “영아나 유아를 위한, 그림이 들어간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는 정의는 적어도 현대의 그림책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우선, 현대의 그림책은 그 테마나 소재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림책은 이제 더 이상 가족과 이웃간의 사랑이나 친구의 우정, 성장에 관한 것 등 어린이에게 ‘맞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입양, 가출, 환경 문제, 전쟁, 죽음, 심지어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뛰어난 화가와 시각 디자이너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그림책 창작에 참여함에 따라 표현 기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들은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코드(code)를 개발하여 왔으며, 표현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1)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교수

개척하고 있다. 이제 그림책은 유아들이 보는 쉽고 단순한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현대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정신이 다른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몇몇 연구들은 이미 현대의 그림책(현은자, 1999, Apsehoff, 1990; Nikola-Lisa, 1994; Paley, 1992)과 정보책(현은자, 2000)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림책 비평은 그 연구의 초점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그림책 작가나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 둘째 독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 셋째, 그림책 읽기에서 성인의 역할이나 교수방법에 대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 중 두 가지나 세 가지 모두를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예: 강은진, 1997; 김양선, 1997)과 그림책 읽기에서 성인의 역할이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예: 성구진, 1994; 김명순, 홍경은, 2000)이다. 따라서 그림책 작가나 작품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상금, 1998; 현은자, 1999). 특히 작품의 세계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더욱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그림책 비평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학자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전 10: 31) 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기독교 학자는 학문활동을 포함한 그의 모든 삶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 받았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에 따라 그림책 연구에서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2. 예술비평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그림책은 문학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시각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독교적 예술론은 그림책 비평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예술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이유와 필요성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창조세계를 붙들고 유지시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골 1:17).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과 창조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세계를 창조하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예술과 그림책이 있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잠을 자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글을 쓰고 읽을 때조차도, 말하자면 우리

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활동할 때조차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벗어나 있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그 분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주시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고 이에 순종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롬 12:1)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교회생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야 함을 뜻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림책이라는 창조세계의 한 영역에서도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Ryken(1989), Rookmaaker(1987, 1993), Schaeffer(1976, 1981)는 기독교 예술론을 발전시킨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Ryken(1989)에 의하면 성경은 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첫째,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술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전의 예술을 위한 지침을 주시고 예술가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 주셨다. 둘째, 예술은 인간의 문화 발전에 본질적인 것이다. 가장 명백한 증거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가인의 족보에 나타나 있다. 이 곳에서 인간의 초기 문명에 나타난 농사, 음악과 기술의 발명을 볼 수 있다. 미학적인 발명은 실제적인 것만큼 인간의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셋째, 예술은 문명화의 과정 뿐 아니라 인간의 복지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비록 방의 벽을 칠한다거나 대중 음악을 듣거나 찬송을 부른다거나 해도 그의 예술적 감각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의 예술적 경험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다.

셋째, 예술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수놓은 의복들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였다(출 28:2, 40). 성경에서 예배가 예술의 역할이 주로 드러나는 맥락이 되고 있기는 하나 예술의 영역은 인간의 모든 삶이 되고 있다. 성경은 예술 작업이 꼭 예배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시와 노래는 하나님 뿐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이나, 자연, 추수 등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예술가는 꽃이나 그룹(cherubim), 황소를 조각할 수도 있다(왕상 6:29). 성경은 성전 기물에 새겨진 사자와 소들(왕상 7:29)에 대해 해석을 하거나 명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성경은 예술의 양식에 대해 어떠한 규범도 주고 있지 않다. 시각예술은 상징적이거나 사실적 혹은 추상적일 수 있으며 음악은 형식적이고 회중적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음악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예술이 타락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예술의 능력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이웃 나라의 우상을 새겨 만든 것이라던가 로마인들의 우상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심지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였던 놋뱀은 나중에 우상이 되었을 때 악한 것이 되었고 부수어져야만 했다(왕하 18:4).

예술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온 가장 큰 결점은 이원론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술의 목적을 복음 전도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예술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술에 대한 매우 편협한 시각이다. Rookmaaker(1987)는 위대한 예술은 원래 복음 전파의 수단도 아니며 복음 전파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헨델의 메시아나 바하의 마태 수난곡은 원래 복음 전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작된 것이었다. 그 작품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곡된 것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었으며 유의미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Schaeffer(1981)는 예술은 단순히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술 작품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이유로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예술작품의 창조성이 가치로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할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성은 인간의 “인간됨”(mannishness)의 본질에 속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Rookmaaker(1987)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작품만 가치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예술을 단순히 삶의 제한된 영역에 제한시켜 보는 견해이다.

Veith(1991)도 예술의 목적이 직접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그분의 창조 세계를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은 어떤 명백한 종교적 의미 없이 그저 아름답기만 함으로서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적인 주제를 가진 예술작품을 기독교 문학이나 기독교 예술이라고 불러 왔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예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Rookmaaker(1983; 384)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 예술은 별다르지 않다. 그것은 하나의 건전하고 건강하며 이로운 예술일 뿐이다. 또한, 실재에 관해 애정 어린 동시에 편견 없는 관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선하고 참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실재의 구조에 부합한 예술이라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예술이라고 특별히 분류할 것도 없다. 우리는 오직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즉 실재에 대한 통찰력이 의심스럽고 그릇된 예술로부터 건전하고 정당한 예술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 그것을 제작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치를 더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작품 자체의 우수성이 인식될 때에야 비로소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예술의 규범을 존중하는 선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의 온전한 인간성이 최대한 발휘된 상태에서 창작할 때, 부정과 불법으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악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그는 아름답고도 영구적인 즐거움을 주는 작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예술이 인간의 삶과는 상관없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Rookmaaker(1995: 319)는 “예술을 위한 예술”은 지난 세기의 발명품으로서 예술과 도덕성간의 관계를 흐리게 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즉, “예술을 위한 예술”의 의미는 예술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순히 인간적인 것인 양 가장하여 예술에게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Rookmaaker는 “예술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다(Art is not autonomous)”라고 단언한다. 예술의 의미는 그것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은 인간의 삶과 생각과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예술이 우리의 삶과 실재와 맺는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예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술가의 작업은 그가 처해있는 사회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현대적 예술 비평방법은 창의성에 모든 생명을 걸고 있다. 그림책 비평에서도 그림책 작가의 독창적인 ‘개성’에 큰 비중을 둔다. 그러나 아무리 창의성이 뛰어난 작품이라 하더라도 작가가 그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본주의가 서구의 문화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적인 학자로는 Francis Schaeffer(1986)를 들 수 있다. 그는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인해 현대의 미술, 음악, 문학, 영화가 어떻게 의미를 잃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예술 감상방법으로 예술성과 기술성과 함께 사상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격성을 파괴하는 작품 외에는 기독교인이 거부하거나 변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술성과 기술성에 문제가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작품 속에 비기독교적인 예술성이나 기술성이 지나치게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보아야 되며 때로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재인용, 성인경, 1998: 54). 뛰어난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는 르네상스 시기의 미켈란젤로(1476-1564)가 조각한 「다비드」상을 들어 그것을 설명하였다. 「다비드상」은 예술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으나, 인간의 승리와 인간의 자율성, 곧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 작품은 성경의 유대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조각상의 곱슬머리와 할례 받지 않은 성기는 히브리인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신체 비례상으로 보아 지나치게 큰 두 손은 인간의 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작품은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왔을 뿐이지 그 인물의 성격과는 관계없는 인본주의의 이상, 곧 인간의 위대성을 상징한다(Schaeffer, 1976: 71-72).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술의 형식(form)과 의미(meaning) 혹은 양식(style)과 내용(content)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Ryken(1989)이 지적한대로 성경은 어떤 표현 양식이 다른 표현 양식보다 더 적합하다거나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Schaeffer(1981)는 예술에서 경건한 표현 양식 혹은 불경건한 표현 양식과 같은 구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표현 양식과 메시지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경고한다. 표현 양식 자체가 특정한 세계관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체계

혹은 전달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는 이제까지 발전되어온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형식을 만들어 낸 세계관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내용과 수단의 통합성은 중요하다. 내용과 수단의 통합성이란 예술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어울리는 표현수단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는 것으로서 회화에서라면 기술, 재료, 크기 등 모든 기술적인 요소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기 위해 잘 선택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Veith(1991)도 예술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용과 형식 그 둘을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예술품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융합된다. 즉 예술품에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반드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위대한 예술가는 작가의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비평은 예술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올바른 문화비평을 위해서 우리는 작품의 예술성, 기술성 뿐 아니라 사상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으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그림책 비평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이상과 같은 기독교 예술 비평원리는 그림책에 있어서도 예술성과 기술성, 내용과 형식의 통합, 사상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책에서 예술성과 기술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글과 그림 각각 뿐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 양식이 잘 통합되어 있는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그림책 비평가인 Nodleman(1988;

78-79)은 그림책의 표현 양식은 작가의 개인성 뿐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표현양식은 의미를 전달하므로 그림 작가는 그들의 경험이나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 취향의 견지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림책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현 양식을 창조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p.78)라고 언급하였다. 좋은 그림책의 조건 중 하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창의적인 표현 양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좋지 않은 작품은 다른 작가들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진부한 표현 양식을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함으로써 가치를 가지는 작품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Brian Wildsmith의 작품들 중 『Birds by Brian Wildsmith』라는 글 없는 그림책은 각종 새들의 화려한 외양을 잘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림책에 있어서도 그것이 담고 있는 세계관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그림책 작가도 이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그림책에서 우리는 종종 인본주의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비평 기준 외에도 아동을 위한 그림책에서 중요하게 관찰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린이에게 의미가 있는 작품인가 하는 점이다. 아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을 성인과 공유하고 있으나 아동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림책 비평에서는 그 작품이 어린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좋은 그림책은 어린이가 편에서 절실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책이다. 그러한 책들은 아동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선사한다. 이것이 Beatrix Potter의 『피터토끼 이야기(The tale of Peter Rabbit)』, Virginia Lee Burton의 『작은집 이야기(The Little house)』, William Steig의 『실베스타와 요술

조약돌(Sylvestra and magic pebble)과 같은 그림책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린이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림책이 주는 유익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기독 교사나 부모는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주는 기쁨보다 그것이 어떤 교훈을 어린이에게 주는가 혹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성경 그림책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림책을 더 기독교적이라거나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림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설명한 예술에 대한 이원론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문학 비평가인 Gallagher와 Lundin(1980)은 문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꼬집으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문학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문학보다 하나님 눈에 더 좋아 보인다는 결론을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목적으로서 기쁨과 유용성을 모두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부하게 만들어진 성경 그림책보다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그린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어린이가 그림책으로부터 받는 좋은 느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자신의 창조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을 따르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림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① 그림과 글의 예술성과 기술성
- ② 내용과 형식의 통합
- ③ 아동에 대한 시각 혹은 아동관
- ④ 작품의 세계관

5. 그림책의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그림책의 장르는 크게 이야기와 정보제공의 비중에 따라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픽션이란 이야기가 주가 되는 장르라면, 논픽션은 이야기보다 사실(facts) 혹은 정보(information)가 주가 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최근에 번역된 외국 그림책들 중 그림책 전문가들에게서 호평을 받은 작품들을 각 장르별로 두 편씩 선정하여, 우선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의 세계관을 살펴본 후 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비평해보고자 한다.

1) 픽션

(1)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의 『지각대장 존(John Patrick Norman MacHenny-the boy who was always late)』(1987)」

버닝햄은 작가 개인의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국내에서 번안 출판된 작가이다. 그의 작품 중에는 1964년과 1971년에 각각 케이트 그린어웨이(Kate Greenaway) 상을 수상한 『보르카(Vorka)』(1963)와 『검피아저씨의 뱃놀이(Mr. Gumpy's Outing)』(1970)가 있으며 이 외에도 5권의 그림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의 하나로는 『지각 대장 존』을 들 수 있다. 존은 학교를 가기 위해 항상 일찍 집을 나선다. 그러나 길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 지각을 하게 되고 선생님은 존의 지각 사유를 이해하지 못해 벌을 받게 된다. 존은 계속 지각을 하게 되고 벌의 강도도 점점 높아간다. 어느 날 존은 아무런 사건도 만나지 않고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고릴라에게 잡혀 교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도와달라는 선생님의 요구를 묵살하고

나와버리는 존, 그러나 그 다음날도 존은 여느 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이 그림책이 1995년에 번역되어 나왔을 때만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그림책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주제나 내용, 그리고 글과 그림의 코드는 기존의 그림책과는 색다르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밖에도 성인들은 교사가 고릴라에 잡혀 교실 천장에 매달려서 교실로 들어오는 존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존이 “교실에 고릴라 같은 것은 없어요”하고 대꾸하곤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에서 당혹감을 느낀다. 이 장면은 존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힌 교사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비추지며, 이유는 막론하고 성인들은 학생이 교사한테 복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의 반항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책의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술성과 기술성, 내용과 형식의 통합, 아동관, 그리고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제나 소재, 혹은 한 두 장면이나 문장을 문제시하는 것은 그림책 비평을 제한된 영역에 가두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선 버닝햄은 이미 여러 그림책상을 수상한 경력이 말해주듯이 독특한 자신의 조형언어를 창조하는 데 성공한 작가이다. 그림의 몽환적인 분위기는 글과 잘 어울려 영국의 안개 낀 풍광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서양의 문화가 낳은 고독한 어린이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현실과 허구의 불확실성은 버닝햄의 그림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부분의 그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현실과 환상의 구분은 교묘하게 사라진다. 이 작품에서 독자는 길에서 존이 당한 일이 그의 상상인지 아니면 실재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첫째 날에는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 그의 옷을 물어뜯고, 둘째 날에는 하수구에서는

악어가 튀어나와 그의 장갑을 물어가고, 셋째 날에는 강을 건너다 폭풍우를 만나 옷이 젖는다. 버닝햄의 스타일에 익숙한 독자들은 채색된 면과 흑백으로만 처리된 면의 대비를 보고 작품 안에서의 실제와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한 존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존은 장갑을 잃어버리고, 바지가 찢겨지고, 옷이 물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버닝햄의 대부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성인과 아동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언어는 서로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 거의 모든 장면에서 성인과 아동의 시선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존재하나 바깥 세계와는 철저히 분리된 존재들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얼굴에는 뚜렷한 표정이 없다. 그 무심한 얼굴은 그들이 고통과 혼란, 몰이해로 가득 찬 바깥 세계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도, 세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신뢰도, 확신도, 애정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 이렇듯 버닝햄은 성인과 어린이의 관계의 단절을 누구보다도 잘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서로의 몰이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서도 주고 있지 않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어린이를 이 왜곡된 세상의 희생자로 그리고 있다.

셋째, 그의 작품 전체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의 애매 모호함은 결론 부분까지 연장된다. 『지각대장 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위 열린 결말의 플롯은 그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다. 열린 결말은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으나 유아들을 혼란스럽고 애매한 세계에 남겨 놓는다(한애란, 1999).

요약하면, 버닝햄의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회의주의적인 세계관이다. 실재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으며 현실은 모호하기만 하다.

그리고 그러한 모호함을 부추기는 것은 인간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그들은 서로 분리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그림책이 보여주는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의 합리적 결론과는 매우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의 대다수가 보여주고 있는 다의적이고 애매 모호한 결론들은 포스트모던 문학의 특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현은자, 1999).

(2)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Brian Wildsmith)의 『잭과 못된 나무』

Wildsmith는 영국의 3대 그림책 작가 중 하나로서 “색의 미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화려하고 현란한 색의 조화를 구사하는 작가이다. 이 작품은 영국 동화인 잭과 콩나무의 패러디이다. 원본에서의 욕심 없고 바보스러울만큼 순진한 잭은 탐욕스러운 과학자 잭으로 대체되고, 하늘까지 자라 잭에게 행운을 안겨줬던 콩나무는 과학자 잭의 과학 실험으로 인해 끝없이 크게 자라 버리는 변종의 나무로 대체된다. 원전의 잭이 씨뿌린 콩나무는 잭으로 하여금 구름 위에 올라가 거인을 퇴치하고 보물을 얻어 행복을 누리게 하지만 과학자 잭의 콩나무는 우주 괴물을 지구에 불러 들여와 온 지구를 파멸의 위협으로 몰아넣는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땅 속에 사는 동물들이 협력하여 나무의 뿌리를 물어뜯어 나무를 땅에 쓰러뜨림으로써 잭과 지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최근 환경문제를 다룬 그림책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탐욕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어린이들에게 인간의 욕심과 과학 만능주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환경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곳에서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그리고 동물은 문제 해결자로 등장한다. 이것은 ‘심

층 생태학(deep ecology)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과 유사하다. 즉, 인간이 다른 생물에 비해 우위를 지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입장에서서 인간을 오히려 생태계의 암세포로 규정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우리의 문화 도처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스티븐 스피버그의 영화인 「쥬라기 공원」과 모피를 입는 사람들의 잔인성에 알몸으로 시위하는 그린피스 당원들은 생태계 교란의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성경적 환경론은 기술이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지향주의도 아니며 인간을 생태계의 암세포로 여기는 생태지상주의도 아니다. 성경적 환경론은 다른 환경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며 인간에게 이 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임무를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왔으며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창조세계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할 때 자연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인격화하거나 유기체로 보는 것은 성경의 피조 세계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인간이 자연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resources)으로만 여기는 견해도 성경적 자연관과 양립할 수 없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임무를 부여받았으므로 자연을 창조 질서대로 보존하는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조세계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창조 세계' 또는 창조 질서라는 말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선, 그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창조자에 의해 부양받아야 한다고 믿었고, 둘째, 그들 자신을 세상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 만들어져 존재하는 피조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Van Dyke, Mahan, Sheldon & Brand, 1999; 51). 따라서 Van Dyke와 공저자들(1999; 51)은 우리가 세상을 가리킬 때 자연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창조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세상을 창조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①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②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③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 ④ 인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책과 못된 나무』를 어린이들과 함께 읽으며 우리는 작가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함께 기뻐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 내용에 나타나는 자연관과 기독교적 자연관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2) 논픽션 분야

(1) Gallimard 출판사의 <지식의 뿌리>시리즈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그림책에서도 정보책(informational books) 장르가 가장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보책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출판사를 들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Gallimard와 영국의 Dorling Kindersely 출판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비록 출판사로서의 역사는 짧지만 모든 연령의 독자를 위한 정보책 출판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발견(Discovery)> 시리즈, <지식의 뿌리(Roots of Knowledge)> 시리즈, <첫 발견책(A First Discovery Book)> 시리즈 등 기존의 편집 방식과는 매우 다른 혁신적인 책들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책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 시대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현은자, 2000). 현은자(2000)는 정보

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지식의 통속화와 상업화, 학문의 경계 허물기, 정보의 시각 이미지화, 책과 독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과학 지식과 진보에 대한 신념이 그것이다.

Gallimard와 DK의 정보책들은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새롭고 생생한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준다는 면에서 매우 훌륭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책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시각적으로 생생한 자료들을 통해 답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앎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heart to learn'을 갖게 한다는 DK의 비전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www. DK. com).

우리는 지금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정보는 이제 '힘'일 뿐 아니라 '돈'이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돈이 되는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포장하면 잘 팔릴 것인지를 알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다. Gallimard와 DK의 정보책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출판사의 성공은 뛰어난 기획과 편집 방식, 그리고 시각 매체의 활용 등과 함께 철저한 시장조사와 판매 전략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Veith(1994: 178)도 지식은 실체가 있고 유형적이며, 정보는 일시적이며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밝히면서 현대 이전과 현대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포스트모던 시대는 정보에 집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여,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정보는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책이 담고 있는 지식에 대한 관점, 혹은 세계관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그 정보책이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어떤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② 그 정보책의 시각적 이미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represent)?
- ③ 그 정보책이 담고 있는 정보 혹은 사실(facts)은 가치 중립적(value-neutral)인가?

(2) 프라이언 멜로니(Bryan Mellonie) 글과 로버트 잉펜(Robert Ingpen) 그림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두 번째로 프라이언 멜로니(Bryan Mellonie) 글과 로버트 잉펜(Robert Ingpen) 그림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을 보자. 로버트 잉펜은 자연보호, 세계평화, 생명존중, 인류문화의 다양성 등을 주제로 그림책을 그렸던 작가이며 1986년도에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작품은 1983년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에 출간되었다.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잘 통합되어 있으며 작가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력 없는 모습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책의 처음과 끝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자. 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는다.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
풀도
사람도
새도
물고기도
토끼도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선 어린이가 보는 그림책에서 이러한 주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에서 인간의 삶이 내용이 되는 경우, 대부분 삶의 기쁨이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같은 긍정적인 면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삶의 마지막, 즉 죽음을 다루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며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다. 죽음은 식물이나 동물 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삶의

종말이 되는 것이다. 인격은 소멸되며 육체는 부서져 없어진다. 동물이나 인간은 생로병사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아동용 그림책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책이 비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림책의 주제나 소재는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 오히려 이 주제는 우리의 주위에 항상 있는 실체이나 그것에 대해 어린이에게 가르치기를 꺼리던 ‘죽음’, ‘생명’이란 것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글과 그림을 통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려져 있는 사물들은 그저 생명력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로 비춰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성경은 인간 이외의 생물체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나고 죽음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의 형체를 지으셨다(시 139: 13-15).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낙관적이면서 또한 비판적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2:23).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엡 2:1).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구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사심이니라”(요한 3:16).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개념이 낙관적인가 아니면 비관적인가는 각자가 어느 편에서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간단히 말해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향하는 문이든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향하는 문이든가 둘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며 근본에서 벗어나간 인간을 회복시킨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뜻 있게 살도록 이끌어주며 지금도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을 부르고 계신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충만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회의주의적 세계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임을 알고 이에 대해 어린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6. 마무리

전자 매체의 홍수 속에서 인쇄 매체인 그림책은 올드 미디어(old media)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동 문화의 한 부분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림책은 아동에게 그림책 작가가 가진 재능의 다양함과 조형언어가 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림책 덕분에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책과 친숙해지고 창조세계의 한 부분인 책이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어도 시중에 나와있는 그림책 중 전문가들에 의해 좋은 그림책으로 평가받은 것 중에서 예술성이나 기술성 면에서 기독교 교사나 부모들이 거부해야 하는 것은 별로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하신다. 더욱이 그림책 작가들은 대체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작품활동을 하게 되고 그림책을 사는 사람들도 어린이 교육에 관련하는 사람이거나 부모가 대부분이므로 내용이 의심스러운 작품들은 어린이의 손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림책에 스며들어 있는 인본주의적 요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특히 외국 번역 그림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때, 우리 사회에는 외국의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거나 유명한 외국 도서상을 수상한 그림책은 무조건 좋은 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그런데 그림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주로 작가의 개성이나 작품의 창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시대의 인본주의 정신이 그림책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림책 작가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사를 발견하고 작가의 정직함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평가를 내리면서 동시에 이 시대와 작가의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책을 어린이와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 시대의 정신과는 구별된 기독교적 대안 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진(1997). 『환상동화와 사실 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순, 홍경은(2000). “글 없는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 『유아교육연구』 20:2, pp.103-120.
- 김양선(1996). 『소그룹 그림책 읽기에서 그림책에 대한 5세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구진(1994). “반편견 그림 동화가 유아의 성 역할 고정 관념에 미치는 영향”
- 성인경(1998).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낮은 울타리.
- 이상금(1998).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사계절.
- 전광식(1994).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통합연구』 7:2, pp.11-67
- 채종옥(1996).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른 유아의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애란(1999).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은자(1999). “그림책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생활과학』, pp.331-366.
- 현은자(2000) “정보책에 나타난 지식관 고찰”, 『어린이문학교육학회지』 1 권(인쇄중),
- Rookmaaker, H. R. (1987). 『기독교와 현대예술』, 김현수 역. (원제: Art needs no justification) 서울:IVP.
- ,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 역. (원제: Modern art & the death of a culture) 서울: IVP.

- Van Dyke, F. , Mahan, D. C. , Sheldon, J. K. & Brand, R. H. (1999).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 유정철 역. (원제: *Redeeming Creation: The Biblical Basis for Environmental Stewardship*) 서울:IVP.
- Veith, Jr. G. E. (1991).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현미 역. (원제: *State of the arts*) 서울: IVP.
- Apseloff, M. F. (1990). "The big, bad wolf: new approaches to an old folk tale",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15(3), pp.135-137.
- Gallagher, S. V. & Lundin, R. (1989). *Literature through the eyes of faith*.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Nikola-Lisa, W. (1994). "Play, panache, pastiche: Postmodern impulses in contemporary picture books",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19(1), pp.35-40.
- Nodelman, L . R. (1988).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Athens, GE: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Paley, N. (1992). "Postmodernist Impulses and the Contemporary picture Book: Are there any stories to these meanings?" *Journal of Youth Services in Libraries*. 5(2). pp.151-62.
- Postman, N. (1992).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of technology*. New York: Vintage Books
- Rookmaaker, H. R. (1995). "Letter to a Christian artist. in In the world: reading and writing as Christian" by J. H. Timmerman & D. R. Hettinga(eds.). Grand Rapid, MI: Baker.
- Ryken, L. (1989). *The Liberated imagination*. Wheaton, IL: Harold Shaw

Publishers.

Schaeffer, F. (1976). *How shall we then live?* Wheaton, IL: Crossway.

-----, (1981). "Some perspective on art in the Christian imagination in for responsive discipleship", In L. Ryken(ed). *Essays on literature and the arts*. Grand Rapids, MI: Baker.

Walsh, B. J. & Middleton, J. R.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MI: Baker.

<http://www.gallimard.fr>

<http://www.dk.com>

<그림책 참고문헌>

Potter, Beatrix(1997). 피터토끼 이야기. 역. 원제: *The Tale of Peter Rabbit*.

Burningham, John. (1987). 지각대장 존. 박상희 역. 원제: *John Patrick Norman McHennessey: the boy who was always late*. 1995. 비룡소

Burton, Virginia, Lee. (1942). 작은집 이야기. 박정선 역. 원제: *The Little house*. 1993. 시공사.

Steig, William(1969). 당나귀 실베스타와 요술 조약돌. 이상경 역. 원제: *Sylvesta and magic Pebble*. 다산기획.

Wildsmith, Brian. *Birds by Brian Wildsmith*.